

대입진학지도 권역별 협의체 구성

도교육청, 17일부터 28일까지 협의회 진행... 7개 권역별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생들의 대학진학지도를 돕기 위해 권역별 진학부장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진학지도도를 위한 고교 3학년 진학부장 협의체를 권역별로 구성, 17일부터 28일까지 협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100개 고교 진학부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17일에는 남원·임실·순창·장수 등 13개교로 구성된 5권역 협의회를 20일에는 완주·진안·무주 등 12개교가 참여하는 7권역 협의회를, 21일에는 정읍·고창 등 15개교로 이뤄진 4권역 협의회를 각각 운영한다.

이어 22일에는 군산지역 9개교가 참여한 2권역 협의회를, 24일에는 익산 지역 14개교 3학년 부장들이 참여하는 3권역 협의회를, 27일에는 김제·부안 등 13개교가 참여하는 6권역 협의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협의체 회의 마지막 날인 28

일에는 전주 일반계고 24개교로 구성된 1권역 협의회가 운영된다.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진학지도 협의체 활성화 방안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대입 지원 전략 방안 △권역별 대면진학상담 실시 방안 △권역별 학생 학부모 입시설명회 시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학입시 지도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그리고 권역별 진학부장 협의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입제도 변화를 고려해 각 지역의 진학지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6일 전북도교육청 본청 별관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국·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ChatGPT 및 메타버스 시연회가 열렸다

전북형 미래학교 조성 '속도'... 도교육청, ChatGPT 시연

ChatGPT 활용 시 쓰기·메타버스 활용 사례 선보여

전북형 미래학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본청 별관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국·과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ChatGPT 및 메타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hatGPT는 GPT-3.5, GPT-4를 기반으로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

해 수집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와 다양한 대화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서비스다.

이날 시연회는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전북교육 여건에 맞는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더불어 에듀테크 기반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민수 미래교육과 장학사가 ChatGPT를 활용한 시 쓰기를 염태상 전주송북초등학교 교사가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선보였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구축,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나아가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올해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도교육청, 17~24일 맞춤형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 찾아가는 맞춤형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 문학, 음악, 미술, 체육, 인성, 과학, 공학, 외국어, 방송, 언론, 의료, 경제, 미용, 공공, 서비스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개인교육기부단은 기관추천과 개인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교육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은 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를 작성해 17~24일자

지 도교육청 교육협력과로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이나 이메일(kh3007@jedu.kr)로 접수하면 된다. 또 기관추천자는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문성 및 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 심의한 뒤 5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하며, 선정된 교육기부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유학생 교육

기부를 통한 '지구촌 문화교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해당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선발된 유학생들에게는 활동비가 지원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청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진로 체험활동을 도울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개인 교육기부단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지지역조사 최종 선정

5월 타당성 분석 위해 필리핀 현지조사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지원하는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이카데미파트너) 프로그램 현지 지역조사 공모에 지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리핀 오지지역을 위한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및 설비

유지보수 인력양성사업을 주제로, 필리핀 사마르(Samar)지역 마을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5월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필리핀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총괄책임자인 박효식 교수(신재생에너지과)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의 기술개발, 제품 보급 교육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주비전대는 KOICA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글로벌연수사업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ODA사업 공모를 통해 국제화 선도 대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대학 신입생 메타버스 체험

전주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안정훈)은 신입생 환영 주간으로 진리관에서 메타버스 체험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신입생들은 가상현실 헤드셋인 오클러스 VR과 소형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유튜브 360도 영상 시청 및 실감형 게임을 체험했다.

안정훈 학장은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이 인문대학의 메타버스 미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전주대 LINC3.0 메타버스 ICC와 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의 지원으로 더욱 흥미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대 인문대학은 인문학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이은호 학생(3학년)을 비롯한 18명의 신입 학생 홍보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 이하영 학생 등 제22기 학생홍보대사들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따라 신입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설명회와 각종 행사 지원, 입시 홍보,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브이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제작, SNS 채널도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이날 조민수 미래교육과 장학사가 ChatGPT를 활용한 시 쓰기를 염태상 전주송북초등학교 교사가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선보였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메타버스 구축,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나아가는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다문화이주민 학생 학력지원 간담회

호원대학교 다문화융합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다문화이주민학생 학력지원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성 총장,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이정현 국제교류센터장, 김지연 다문화융합지원센터장과 레빈홍 주한 베트남대사관 1등 서기관, 부득영 주한베트남 교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호원대학교의 다문화이주민 학력지원 사업 설명 및 다문화 학생들의 취업 연계방안, 다문화이주민 학력지원 사업 홍보방안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레빈홍 주한 베트남대사관 1등 서기관은 "호원대학교 다문화이주민학생 학력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 학생들이 미래의 취·창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호원대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취·창업을 잘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이주민의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는 지난 2021년 3월 다문화이주민 및 가족(배우자,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문화융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제23기 학생홍보대사 '전율'이 16일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대학의 장점, 많은 이들에 널리"

전북대, 제23기 학생홍보대사 임명 본격 활동 돌입

전북대학교 제23기 학생홍보대사 '전율'이 16일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이은호 학생(3학년)을 비롯한 18명의 신입 학생 홍보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 이하영 학생 등 제22기 학생홍보대사들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따라 신입 학생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대학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설명회와 각종 행사 지원, 입시 홍보,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브이로그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 제작, SNS 채널도 운영한다.

/정은성 기자

제23기 학생홍보대사 대표인 이은호 학생은 "우리 대학이 가진 장점과 우수성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청중의 열정과 적극성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대학의 참 모습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 홍보대사들은 대학을 방문하는 이들과 직접 눈빛을 주고받으며 홍보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 모두가 걸어 다니는 홍보 미디어라 생각하고, 우리대학을 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대학 내 교통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31일까지 학생종합안전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학생종합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대, 31일까지 학생종합안전지도 실시

교통안전·불법단체 포섭·불법상거래 지도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대학 내 교통문화 정착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31일까지 학생종합안전 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처 직원과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 자치기구 학생 등 50여 명의 봉사단이 참여하는 이번 안전지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 지도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단체 포섭 근절, 불법 상거래 근절 등 학생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주요 2회, 오후 1회 등 하루 3회 구정문 일대의 거리와 신정문, 뉴실크로드센터, 문화록 예술대 앞 박물관 상대 3호관, 중앙도서관 등 8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계도와

과속 단속, 불법단체 포섭 및 불법 상거래 근절 등에 대한 지도를 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 학생처는 학생종합안전과 관련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새 학기가 맞물려 많은 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이 활발해진 시기에 맞춰 학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며 "학생 계도와 단속 등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포스코그룹 채용설명회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2023년 상반기 포스코그룹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교양관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는 전기자동차공학부·소방방재학과·정보보안학과 등 모집직무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포스코 인사담당자가 참석해 모집분야와 우대사항, 채용과정, 수행업무 등을 설명한 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지원 자격, 채용 가능성 등을 직



접 확인하며 취업 관련 정보 파악에 주력했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학생들에게 비전과 성장을 제시하는 다양한 기업의 채용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